

폐기물 재활용과 주민·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3:55 -

4:10

관악구의회주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을 위한 공청회
'96-5-29 2:00 PM
관악구의회주최

I 환경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련 대책으로 대주

인구증가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 도시집중
자원고갈 → 쓰레기 처리문제 (세계의 골치거리)
「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 운동, 행동

95.7.15 환경위원회:

재미 103쓰레기 처리지역에서 처리
쓰레기 처리문제 — 물질, 유해물질
처리처리 → 고도의 기술, 전문인력, 처리시설, 처리공간, 막대한 예산
관악구의 양분쓰레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① 재활용 ② 재활용 ③ 소각 ④ 매립

유해폐기물 (쓰레기량(계량별) 재활용, 소각, 매립)

서울시의 2001년 처리목표: 재활용 35%, 소각 35% (1.0%) 매립 27.7%
관악구 — 재활용수익 (소각로) 수처리 매립의 회수공구 전액 (매립 2000원)
매립비인상 5000원 → 8,000원 (1.45배)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 있음

중요한 정책 → 유해폐기물 (소각처리), 재활용

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수

II 관악구의 재활용 (재소 → 인본의 발달?)

관악구민의 쓰레기 배출량 1.08kg 비닐 3kg. 1.45배.
배출량 증가 추세

'95년도 관악구 재활용: 53톤 → 재활용 분리수거

'96년도 재활용 예산 증액 (비율이 100% 이상) 기한도 연장?)
128억 → 178억 (총액 30%)

재활용분액 1035원 = 재활용수익 (195-2000)의 10% (195-2000)의 10%

유해폐기물 (1500원)

종료 (1980원)

정리대리 (1200원)

비닐, 종이, 금속 (7500) } 재활용
시설투자 (2000)

소각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분리수거 처리 (유해 폐기물)
정리대리

소각량 감소로 됨:

재활용 산업의 소각량 감소의 문제는 상반관계 있다. → 소각량 감소 현상 문제.

소각의 영향

재활용 산업의 소각량 감소의 영향 → 재활용 산업 (171745) 역시 그 결과

재활용 산업의 의미 감량 + 재활용량

재활용? 쓰레기 문제 아 아니 문제?

III 폐기물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률)

지구환경 문제인 재활용 문제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전환

「쓰레기로 지어지다」 재활용은 「환경을 위한 자원이라고 지어지다」

「이것이 쓰고 다시 쓰다」

남녀노소 함께

불량재는 없다

재활용에는 문제가 없다

쓰고 버는 사회

IPWD로 전환되면서 「재활용」 없어졌다.

현재 미국은 재활용 재활용 3배 증가 → 노골적인 대중적 경으로 증가

국내 재활용률은 20% 정도 밖에 안 된다.

「자연의 재」 ① 재활용 → 재활용 (생산,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②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산업의 3가지 고리

① 재활용인 수가 많고 재활용률

②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③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의 구조

→ 재활용 재활용

3가지 고리 연결은

① 재활용 재활용 -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② 재활용 -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③ 재활용 -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④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산업의 기반 시설 후진에 있어 한계: (국민의 재활용 인식 = 재활용률 - 재활용률)

재활용 재활용 →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TV 주민의 참여 방안

지구환경보전 - 개개인의 작은 생활 실천 「지구적=로 생활, 지역적으로 행동」
 「생활을 지킴으로써 지구기보이기」

재활용 주민의 참여 없이 불가

도시살아내기 운동하기 → 주민들 재고위하는 시민조직 (수작업의 환경보전)

폐기물처리와 비용 절감 - 쓰레기의 가치이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 환경보전 교육활동 주민 활동

중앙위원회에서 나누어주게 - 환경보전, 분리수거의식 (분류집이식서)

부서의 관리나 → 분리수거, 무심한 처리가 행으로

Agenda 21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 환경친화적인 생활의식 → 주민의 생활

녹색소비생활의 필요성 - 우리말로써 환경을 친화적으로 행동 시킨다

우리말, (환경제) 경제쓰고, 경제버리고, 분리수거(재활용) - 가정에서부터 실천
 재활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가짜이 하게 하고 (위해자료의 가치)

환경친화적인 생활:

분리수거, 수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 그대로 해야 한다.

함께하면 쉬워진다.

정보교환, 상호협력, 책임감 있는 자세

이웃과의 만남, - 공동체(사회)성 (외로움 줄 수 있는 자세)

TV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민간단체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환경보전이다.
 공공영역 - 쓰레기, 민간영역 - 가짜 제품영역 -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 주민위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함으로 (시민위해위해구호)
 '66년 주권으로 제정된 민선 주민대표로, 주민위해이다.

민간단체의 역할: 구청과 함께 재정을 확보한다, 녹색민간단체의 역할

문제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 대중의 생활을 해하는 악습을
 주민을 위해, 대안, 수단

민간단체: 생활, 리미트, 각각, 녹색소비

환경보전위원회:

민간단체의 역할 - 지역의 녹색소비위원회 함으로

구청 각분야에 주민위원회를 - 지역 주민 간의 정보교환 (지역정보)

민간단체의 역할:

재활용사업 → ① 연구개발으로 ② 리미트로 해결한다 ③ 교육, 홍보 재고
 ④ 리미트사업 ⑤ 각각이 다른 해결책

주요사업이 많아짐 (구청과 함께 함으로)

대안사업: 생활, 주민, 민간 (민간단체, 생활, 민간)

VI 리즈비전단체의 재창출에 대한 사례

- ① 재창출 자체 ② 재창출이 된 때 ③ 중립을 들먹인 ④ 중립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 ⑤ 이해의 이해를, 이해를 잘 이해하기 ⑥ 후회하는 것으로, 기억을 내 이해
- ⑦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에 대해 이해 ⑧ 이해,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⑨ 실이제 (인간관계)
- ⑩ 재창출에 대한 이해의 이해

VII 이해의 이해:

시비거주, 이해의 이해를 위한 노력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100명 중 1명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결과: 리즈비전 단체의 재창출에 대한 이해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를 위한 노력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를 위한 노력 —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리즈비전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를 위한 노력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를 위한 노력 (리즈비전)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를 위한 노력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를 위한 노력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리즈비전 단체 — 리즈비전 단체의 이해

폐기물재활용과 주민·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86-5-21
관악구의회

획기적인 폐기물정책전환의 필요성 대두

세계2차 대전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생산과 생활 양식의 팽창으로 급기야는 60년대말 자원 고갈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인간의 대량소비의 결과는 대량폐기로 이어지고 지구의 자정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골치꺼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여름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지역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대책 위원회에 의해 반입 거부되면서 장마철 한여름에 쓰레기 몸살을 했던 경우에서 세계에서 겪고 있는 「쓰레기 전쟁」을 우리도 실감한바 있다.

오늘의 쓰레기 문제는 배출량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된 쓰레기를 쉽게 자연으로 환원시킬 수 없을 만큼 그 질이 다양하고 위해성이 높다는데 더 큰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원천적으로 쓰레기의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정처리를 위한 고도의 기술, 전문인력, 처리시설 처리공간 및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각 자치체가 지도록 되어 있다. 지난 7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래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에 의해 관악구에서도 폐기물처리의 근본적이며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통합관리원칙은 ①원천감량(재사용 포함) ②재활용(재자원화 퇴비화 포함) ③소각(전력생산 포함) 그리고 ④매립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역의 폐기물 배출량과 성상 그리고 지역 여건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폐기물처리 지향 목표는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자원화를 최대화하고 남은 것은 소각처리하여 불연 쓰레기만을 매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2001년 처리 목표를 재활용 35%('95년목표 25% 처리기초시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달성 여부 확인 불가), 소각처리 35%(현재 1.0%), 매립 27.7%로 설정하고 있다. 관악구에서도 성취해야 하는 이러한 목표치는 국내 폐기물처리 현황으로 보나 비교적 통합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폐기물 처리 선진국의 선례에서 보나 쉬운 일이 아니다.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목표 달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폐기물의 통합관리와 관악구청소(?) 행정

관악구의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구민 한사람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318kg로 '93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3년도의 구민의 하루 배출량은 1.08kg로서 한국평균치인 1.45kg보다 적으며 독일(0.9)과 일본(1.01)수준에 머물고 있다. 감소량은 유류와 가스공급의 확대에 의한 연탄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며 관악구의 쓰레기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지역 사정은 여타 자치구와 다름바 없다.

관악구
주민투표
결과

'95년도 관악구청백서에서 보면 관악구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구민에게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195쪽)

동별로 주2회 지정된 일자에 수거하여 동자체 혹은 구 재활용 집하장에서 선별후 매각처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사업은 운영된다고 한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①분리 수거의 인식 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고 있어서 인력과 예산 낭비 ②재활용사업의 대부분의 작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재활용사업의 수익금을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③수집품의 전량판매가 되지 못하는데서 필요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④파쇄기 등의 폐기물의 중간처리 장비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관악구에서 감량화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퇴비화 사업도 하고 있다.

부속한비 약30% '96년도 관악구의 청소사업의 예산은 '95년도 집행액에 비해 팔목할 만하게 증액되었다(12,235,833천원→17,789,985천원). 청소행정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폐기물관리 비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사업과 관련된 '96년도 예산은 계속 사업으로서 ①음식물퇴비화사업(1,500만원) ②무단투기문제및 재활용사업 홍보(1,980만원) ③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1,200만원) ④재활용홍보견학등(47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⑤재활용보관 창고 및 작업장 설치(7,500만원) ⑥재활용센터 시설보강(2,000만원)-이상 재활용사업으로 명시된 것-으로서 총합 1억 5천만원이다. 이 금액은 '96년 구정7대주요계획 중의 환경관련 부문의 새로운 청소행정추진의 첫째과제인 자원회수시설건설('95~2000년)의 시설임지타당성조사비 1억5천만원과 같은 액수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예산 소요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나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방법에 상관없이 톤당 시설설치비는 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관악구가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의 시설설치비 포함 1년간의 운영비가 소각장건설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역점사업에 대한 관악구의 의지와 그 일의 내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그 정도의 예산투입으로 소기의 감량목표와 자원절약의 성과를 건울 수 있다면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주1개소
환경관리량
2000년
100개소

관악구의 폐기물통합관리 정책수립에 있어서 소각장건설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각장의 시설규모, 소각로선정, 배출유해물질처리기술, 주민들과의 협의과정 등의 쉽지 않은 난제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중에서도 재활용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소각용량의 책정이다. 소각로가 일단 가동이 되면 중단 없이 운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과다한 용량의 소각로는 다량의 폐기물을 필요로하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폐기물을 태워 버리게 된다. 서울시의 방침에서 보면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작업 등에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재활용사업을 소홀리한채 전량 소각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재활용사업이 쓰레기감량 문제 보다더 자원절약이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데 있다. 최근 재활용사업이 폐기물문제인가 아니면 자원문제인가 하는 질문이 새삼 이러나고 있는 것은 이런데 뿌리를 두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자원회화)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21세기를 문턱에 두고 대두된 지구환경문제와 재활용문제의 붉은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달리 해주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쓰레기도 자원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껴쓰고, 다시쓰자」는 것이다. 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버리게 되는 물건이 나에게서는 쓰레기이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원이 된다. 재활용(재사용) 사업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근거로 성립된다. (관악구 환경관리팀 51호 지인호)

불황시기에는 돈이 없어서 전쟁 중에는 물자가 귀해서 물건을 아껴쓰고 재활용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그리고 소비미덕의 풍요 사회는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등으로 「쓰고 버리는 사회풍조」를 만연시켜서 재활용운동은 설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1970년대의 미국의 표준사전에서 재활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자재의 재사용을 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주 정부들로 하여금 이행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21세기 실천 강령(Agenda 21)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실천 강령의 제21장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원칙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란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양식의 개선을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 과정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련 사업으로서는 ①폐기물의 최소화 ②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화 ③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증진 ④폐기물 관련 서비스 활동이다. 이네가지 사업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이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사업들의 조정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조건과 폐

기물의 발생량과 성분구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 모든 사업에는 지역사회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사업은 합리적인 수거 및 처리체계와 재생자재사용생산체계 그리고 재활용상품의 구매체계 등의 3박자가 제대로 맞을때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세개의 고리의 연결을 위해서는 주민, 구의회, 자치구내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체의 공동노력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①지방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상품을 우선 구매한다. ②의회는 정책집행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정책을 뒷받침한다. ③주민은 쓰레기 배출을 적게하며 정밀한 분리작업과 정해진 수거일시를 철저히 지키며 재활용상품 등의 녹색상품을 구입 사용한다. ④자치구내 기업은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며 분리수거 및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재생자재를 활용하는 환경산업을 운영하며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생산 공급한다.

재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나라들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는 「중간선별장」 운영이다.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어느 자치구에도 이 시설이 있다는 말은 들은바 없다. 투자 없이 재활용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쓰레기재활용사업은 주민의 의식만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관악구청의 몫이다.

주민의 참여 방안

거창하고 복잡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도 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환경친화적인 작은 생활실천에서 비롯되는데 재활용사업이야 말로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불가능하다.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과정이나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유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질을 결정하는 선별작업이 중요하다. 쓰레기통합정책에서 재활용사업을 행정부 측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수거과정과 선별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작업 이상 더 정밀할 수 없는데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전구민이 동원되는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홍보와 교육활동이다. 미국의 경우 자치체마다 다양한 자료들을 1년에 3~4차례 3~4개의 언어로 만들어 각가정에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95년 1월부터 전면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로 쓰레기의 양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95년도 구정백서에서 지적 했듯이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으로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보내질 규격봉투속에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있을수도 있다.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일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치체의 분리수거방식을 몰라서 이기도 하다. 바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의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기위한 21세기 행동강령 제21장의 폐기물관리원칙에서 폐기물관리란 발생한 쓰레기의 적정처리와 재활용만이 아닌 기업의 생산과 개개

산림부령의 개정적인 개정 → 환경친화적인 생활수행

인의 소비양식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기업의 생산양식과 소비자의 소비양식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작용으로 개선은 가능해 진다. 모든 개인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녹색소비생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비양식의 변화 즉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녹색소비생활이란 재활용품을 우선구매하고 환경마크상품을 찾아 구매하고 적게쓰고, 다시쓰고, 적게버리고, 유해성물질과 재활용물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행정부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스스로가 해야 하는일을 찾아 나서서 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은 때로는 불편하고 수고를 해야하고, 돈이 더드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이웃과 함께하면 힘이 생기고 효과를 얻는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결려해가며, 협력하므로 녹색소비생활을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도시생활에서 잃었던 이웃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서로 돕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회를 공동체사회로 회복시킬 수 있는것도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므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민간단체(시민운동)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시민자치제이다. 시민사회는 민선자치제도와 시민운동이 등가치적으로 병립할 수 있을때 가능해 진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민선자치단체장시대를 열면서 시정을 시민과 함께 펴기를 선언하고 각부서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참여의 문호를 개방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한정된 행정력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시대의 관악구의 시정이 구민에게 무엇을 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스스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때 그 역할의 큰부분은 민간단체의 몫이다. '96구정 주요계획서에서 보면 관악구는 이지도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일에 주력하는 인상이다. 즉 구민을 행정의 수혜자로 혹은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을 고객으로 표시는 행정구현이라던가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이라는 등의 주요 정책 표현에서 그러한 인상을 받는다.

관악구의 자료에 의하면 관악지역사회의 구정과 관련있는 지역사회단체들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예환경감시원 동단위재활용주부모임, 관악구주부환경봉사단, 녹색관악구민실천협의회 등이 있다. 관악지역사회에도 타 자치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민간단체들이 많을것으로 안다. 생활협동조합, 음식물퇴비화모임, 유기농산물직거래모임, 녹색소비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민간단체들의 시정에의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관악자치단체가 시정을 이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구정의 계획단계에서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개하고 참여하게 하는데서 민간단체의 참여의 문은 열린

다.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 처럼 각분야에 구정을 위한 구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자치체와 구민간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한다. 각위원회의 기능은 종래의 자문위원회식이어서는 안되며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 참여의 중요성은 주민의 참여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다. 민간단체의 참여로서 재활용사업을 ①범주민운동으로 ②자율적인 운동으로 ③교육, 홍보 활동의 효율성제고 ④자원봉사정신 발휘 ⑤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재활용사업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간단체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를 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시간여유도 있고 생활주변문제에 보다 관심이 큰 주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이들의 구정참여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일이 우선 과제이다. 예를 들면 주부들로 관악구 쓰레기시민회의 등의 구성이다. 서울시가 환경분야의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의 시정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는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제안한다면 관악자치구내의 유희인력으로서의 고령자 모임 또는 취로사업을 위한 인력들을 재활용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장애인이나 고령자 복지관의 활동에서 많은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민간단체의 재활용활동의 사례

① 재사용가게(Reuse shop)

영국과 미국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점으로서 특히 대학교 주변에서 성업중이다. 중고품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의류, 집기, 가구, 서적, 건축자재, 장식품등 없는 것이 없다. 대개의 경우 암환자, 소아마비, 에이즈, 제3국을 돕는 단체 또는 자선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기증받거나 모아진 물건들을 잘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싼값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특히 외국유학생들) 잠깐 필요한 물건(파티복등)을 비싼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의 중고품이용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용자들이 꺼려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민간단체들이 가끔 여는 바자회나 벼룩시장과 다른점은 임시로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상점으로 상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을 매기는 문제에 원칙이 따르고 있어서 거저주다 싶히 하지 않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도 이러한 점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잡동사니 판매(Jumble sale, Garage sale)

특히 미국사람들이 즐겨하는 형태로서 주기적으로 살림을 정리해서 쓰지않고 묵혀있

는 물건이나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자기집 앞마당이나 차고에 진열해서 이웃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다.

③ 중고품 물품 교환소

가구, 건축자재(문틀, 변기) 등을 주로 취급는데 미국 버클리의 한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분비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른 물건과 바꾸어 가기도 하고 어떤이는 물건을 맡기고 후에 필요할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기로 하기도하고, 물건을 사가기도 하지만 물건을 돈을 주면서 갖어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수령거부하는 물건은 되갖어가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 곳은 주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넓은 공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④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와 유기농산물 교환 활동

일본자치체중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아파트단지에서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퇴비화한 음식물찌꺼기와 인근 농장의 유기농산물을 교환하는 활동으로서 이활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유기비료를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는 쓰레기를 주리고 건강한 식탁을 마련할 수 있어서 성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분이 많은 쓰레기를 분리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소각이나 매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⑤ 맥도날드사의 용기 개혁

매출액이 엄청나며 세계시장을 가지고 있는 맥도널드사가 사용하는 1회용 또는 스티로폼 용기등을 환경의식이 투철한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대체물을 개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재생지 제품(갈색지류)으로서 음식찌꺼기와 함께 퇴비화가 가능하도록되어 소비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⑥ 슈퍼나 백화점 식품부의 발포제용기 사용제한

생선과 육류이외의 상품에는 용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닐제 쇼핑백 사용을 주리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자에게는 상품권을 준다던가 유가로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하는것으로 포장재사용 억제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⑦ 지역사회 자급자족 운동

미국 워싱턴 디씨의 자급자족을 위한 민간단체(Self-Reliance)가 추가적인 소각장 건설을 문제삼으며 재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활동이다. 이들은 재활용사업이 지역사회의 자급자족하는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업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자기구에서 해결하려는 운동으로 지역사회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해 실업의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⑧ 자주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임대 또는 공동구입

영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으로 각 주택단지 지역에서 각가정이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물건을 모든 가정이 구매 할때 보관의 문제, 물자낭비의 문제를 감안하여 임대를 하는 활동 또는 몇가정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이다.

⑨ 재활용사업을 포함한 폐기물관리업무 민간업체가 전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여러도시들이 민간기업에게 폐기물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는 일이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철저하게 종량제실시를 하고 있으며 일정량이상 배출시에는 누진수거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의 실비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량제를 위한 규격봉투 가격은 현재 폐기물의 운송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비부담제도가 정착되기전에는 종량제라고 해서 폐기물의 감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⑩ 미국의 재활용사업 연합(National Recycling Coalition)

미국의 워싱턴 디씨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구는 미국의 재활용사업의 연합기구로서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체, 관련기술개발업체, 운송업체, 유통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기구 산하에는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의 파송대표로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재생자재에 대한 품질의 등급 또는 가격조정도 맡고 있다. '94년에는 시카고의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재생자재의 품목, 량 그리고 보유처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재활용사업의 세계의 연결고리의 마지막 고리인 시장형성(Marketing)과제까지 담당하고 있다.

맺는말

자치구의 폐기물 통합관리정책에서 재활용사업은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나 자원절약을 위해 소홀리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활용 사업전개에서의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들의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행정을 구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자치체와 구민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을 구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의 쓰레기관리를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성과가 크다.

자치구의 재활용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협동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이 도시사회의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웃 자치구와 인근 농촌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과 지구를 동시에 쾌적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관악구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기위해 관악구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해이러한
사회진전
정책대안
전개
개선
개선